

# **대한민국 대표 금융상품을 제안한다 !**

## **- True ISA -**

강원철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 부동산학 박사)

**민주연구원**



대한민국 대표  
금융상품을 제안한다 !  
- True ISA -



# CONTENTS

I. 국민 금융상품 도입 필요성	1
II. 대한민국 금융상품 현황 및 문제점	3
1. 재형저축	3
2. 소득공제 장기펀드	5
III. 선진국 국민 대표 금융상품 사례	8
1. 영국 ISA	8
2. 영국 CTF, Junior ISA	10
3. 캐나다 TFSA	12
4. 일본 NISA	13
IV. 박근혜 ISA VS 재형저축·소장펀드 VS 선진국 ISA	16
1. 박근혜 ISA 현황	16
2. 박근혜 ISA VS 재형저축/소장펀드	20
3. 박근혜 ISA VS 선진국 ISA	22
V. 결론(True ISA)	26
1. True ISA	26
2. 기타 개선점	34



## 요 약

최근 1,000조원의 부동산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어 주택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중산층과 서민의 어려움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은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고심해 왔으며 그 출발점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금융상품을 만들고자 하였다. 박근혜 정부 기간동안 대한민국 대표 금융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형저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까지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실패를 거듭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내 국민금융상품(재형저축, 소득공제 장기펀드, ISA)의 실패이유를 파악하고 성공적인 해외 국민금융상품인 영국 ISA, CTF, Junior ISA, 캐나다의 TFSA, 일본의 NISA의 성공원인을 파악하여 대한민국 대표 금융상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공적인 해외 ISA는 공통적으로 정부의 과감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금융권의 자율 경쟁 등을 통해서 건전한 금융문화와 가계소득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잘못된 제도설계로 인한 일회성 상품이었으며 저소득층과 유소년층에 대한 배려부족, 투자자문의 기능 결여, 정부의 지원부족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즉, 성공적인 국민 금융상품에 대한 해답은 이미 해외 사례에서 분명하게 나와있지만 현 정부는 애매한 금융상품을 도입함으로써 생색내기 정도의 일회성 정책을 고집해 왔다.

이에 True ISA는 현정부가 추진해온 False(박근혜) ISA에서 ① 가입자격을 소득요건에서 연령요건으로 변경 ② 일몰 및 의무가입기간 폐지 ③ 세제혜택 및 기간 확대 ④ 중도인출 가능 ⑤ 편입가능 상품 확대 ⑥ 계좌이동 자유

등의 기능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소득자를 위해서 금리혜택이 추가된 저소득형 ISA와 유소년시절부터 금융교육, 목돈마련을 위한 유소년 ISA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 유소년 ISA는 일반 ISA에 자동승계되어 국민들이 생애주기에 맞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문이 활발하게 뒷받침되어 건전한 가계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True ISA가 한국의 대표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아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한국 경제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 대한민국 대표 금융상품

- True ISA -

## I 국민 금융상품 도입 필요성

- 우리나라 경제는 실질 경제성장률이 2%대에서 움직이는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있으며 점점 더 성장의 과실이 가계부문으로 유입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임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에 의하면 국민 총 처분가능소득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1989년 중 연평균 75.1%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줄어들어 2012년에는 63.6%에 그쳤음
  - OECD(2013)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총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문 비중은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비교 가능한 21개 국가 중 6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음
- 갈 곳 없는 930조원의 단기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투기를 유발하고 국민들의 주거비 고통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므로 부동산 이외의 대체수단이 필요한 상황임<sup>1)</sup>
  - 우리나라 가계 자산이 부동산 자산에 편협 되어 있어 부동산 위기 시 취약한 상황임

1) 2015년말 기준.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 자료

- 대체투자 수단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 부동산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은 국민들의 주거비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 이에 정치권은 가계 부문의 소득증대를 경제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한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정책개발에 고심해 왔으며 그 출발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금융상품을 만드는 것임
-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대한민국 대표 금융상품을 만들기 위하여 재형저축,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라 한다),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이하 “ISA” 라 한다)까지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실패를 거듭하고 있음
- 본 고는 박근혜 정부 이후 만들어진 국민을 대표하는 금융상품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하여 대한민국을 대표 하는 금융상품을 제안하고자 함
- 기존 국내 국민금융상품의 실패 이유를 파악하고 성공적인 해외 국민 금융상품을 분석하여 대한민국의 대표 금융상품을 제기함



## Ⅱ 대한민국 금융상품 현황 및 문제점

### 1. 재형저축

- 재형저축은 박정희 정부 시절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오다 폐지된 금융상품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며 2013년 3월 부활함
  - 박정희의 재형저축은 1976년 처음 도입되어 1995년까지 19년간 운영되어 오다 폐지됨
  - 박근혜의 재형저축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시절 금융당국에 요구해 금융위원회가 추진함
- 재형저축은 저금리·저성장 환경으로 적절한 목돈마련 수단을 찾지 못했던 국민들에게 관심을 일으키면서 출시 첫날 29만건의 가입자를 유치함
  - 처음 선보인 재형저축 금리는 3.4%~4.3% 수준이었고, 은행별로 급여 이체나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에 따라 추가금리 혜택을 받아 최고 4.6%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었음
  - 도입당시 정기적금 금리가 2%대까지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중 금리에 비하여 2%까지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었으며 세제혜택까지 부여되어 높은 관심을 받았음 ([표 1])

**[표 1] 재형저축의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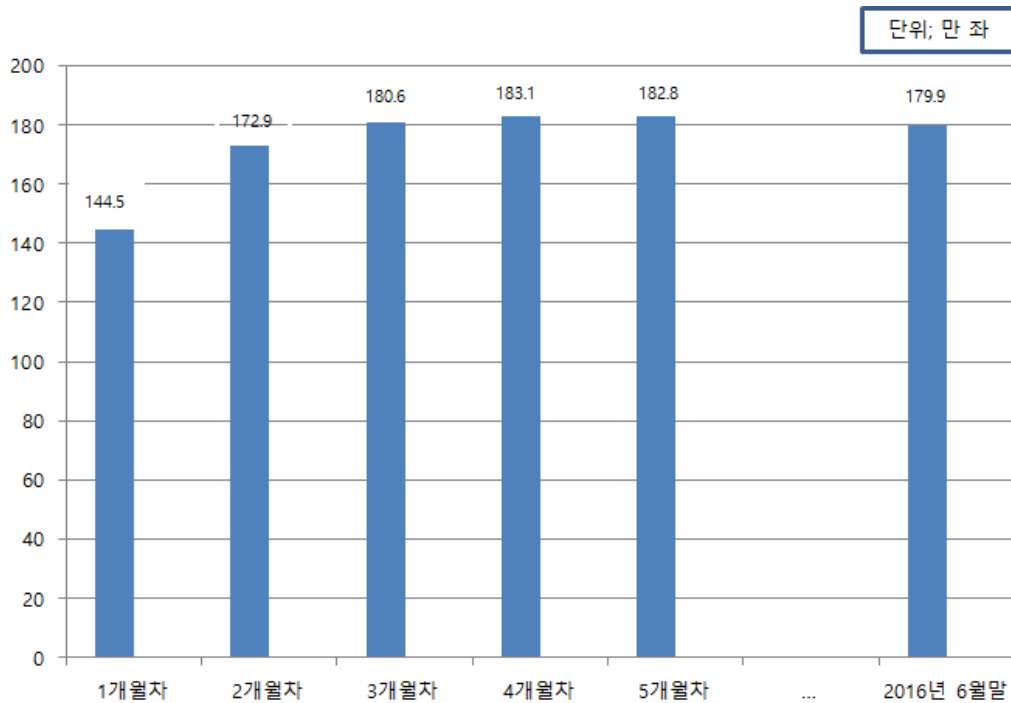
구분	재형저축
가입자격	1.총 급여 5,000만원 이하 2.근로자종합소득3,500만원 이하 사업자
납입한도	분기당 300만원(연간 1,200만원)
세제혜택	이자 및 배당 소득 비과세(농특세 1.4% 부과)
수익률	약 연 4%초반 (우대금리 적용 시 최고 4.6%)
저축기간	만기 7년 이상, 최장10년간 (7년만기시 1회한 3년 이내 연장가능)
가입시한	2015.12.31 가입 분
편입상품	예금, 펀드, 보험
손익통산	해당 없음(상품별)
상품 간 교체	불가

주: 금융감독위원회

□ 재형저축은 초기 1개월차 144.5만좌에서 4개월차 183.1만좌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고금리에 감춰진 재형저축의 약점이 드러나면서 정체되어 2016년 6월말 179.9만좌로 감소함([그림 1])

- 재형저축의 감소는 초기 3년간만 고정금리로 기본금리가 보장되고 이후로는 변동금리가 적용되어 3년후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는 4년간 저금리를 감수해야 함
- 재형저축은 장기상품이므로 소비자의 선호나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타 금융사로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계약 이전이 불가능함

[그림 1] 재형저축 현황



주: 금융감독위원회

## 2. 소득공제 장기펀드

- 소장펀드(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서민층 및 젊은층의 목돈마련 지원과 자본시장 수요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금융당국이 2014년 3월에 도입한 절세형 상품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심리 위축으로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었음

- 소장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본 펀드에 투자한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최대 240만원)을 최대 10년간 소득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임 ([표 2])

[표 2] 소장펀드 주요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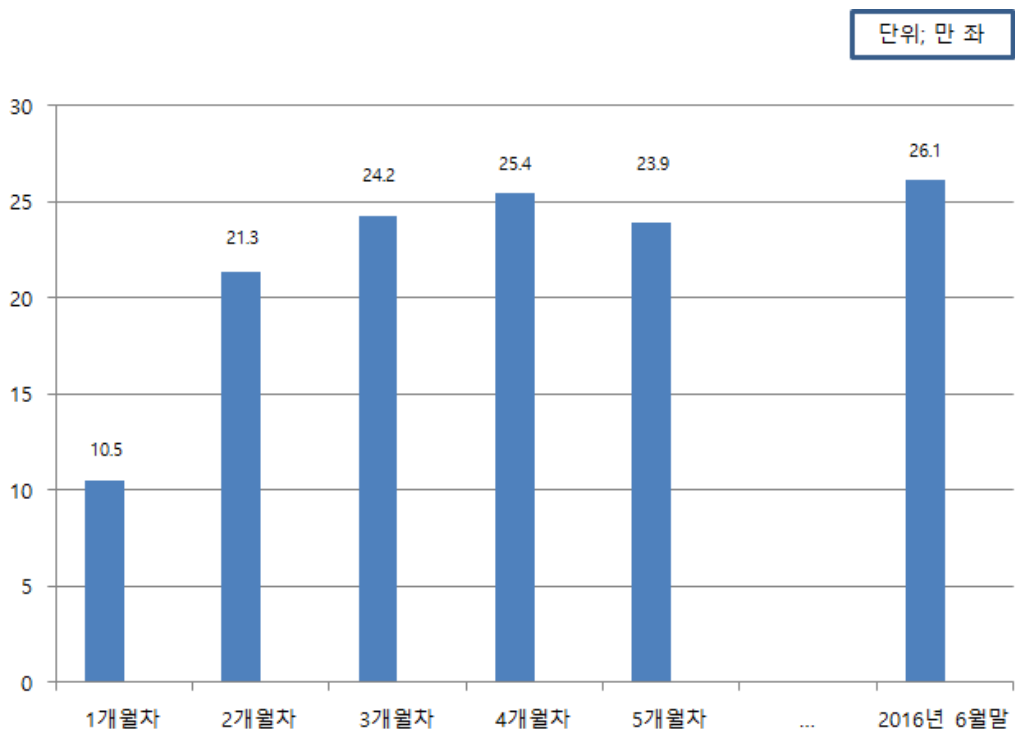
구분	소장펀드
가입자격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납입한도	연 600만원
세제혜택	납입액 40% 소득공제(최대; 240만원)
저축기간	만기 5년 이상, 최장10년간 (5년 만기 시 1회한 5년 이내 연장가능)
가입시한	2015.12.31 가입분
편입상품	펀드
손익통산	해당 없음(상품별)
상품 간 교체	불가

주: 금융감독위원회

- 소장펀드는 출시 이전부터 소득공제라는 세제혜택이 부각되어 초기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가입대상 한정과 원금손실 가능성으로 정체됨
- 소장펀드는 초기 1개월차 10.5만좌에서 4개월차 25.4만좌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 6월말 26.1만좌에 불과함([그림 2])
  - 소장펀드의 가입대상자인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금손실가능성과 장기보유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소장펀드의 가입여력이 제한적임
    - 소장펀드는 펀드라는 상품의 속성상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원금손실 가능성과 5년 이상 장기보유 해야함

- 국세청의 2012년 소득통계에 따르면 가입대상인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1,300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82.7%에 해당되나, 총급여 2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58.9%를 차지하여 실제 소장펀드 가입여력이 제한적임
- 신입사원의 경우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 가입 할 수 없음

[그림 2] 소장펀드 현황



주: 금융감독위원회

□ 결국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는 가입대상 제한, 강제 가입기간 등 제약 조건과 정부 불신으로 인해 국민대표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지 못했음

### III 선진국 국민 대표 금융상품 사례

#### 1. 영국 ISA

□ 국민대표 금융상품의 대표적인 해외 사례는 영국의 개인저축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ing: ISA)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모범적인 국민금융상품임

○ 영국 ISA는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종합저축계좌로 가입자들은 ISA에 현금성 예금, 보험,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할 수 있으며 인출에 제약이 없음

□ ISA는 비과세주식저축플랜(Personal Equity Plans: 이하 PEPs)과 비과세특별저축계좌(Tax-Exempt Special Savings Accounts: 이하 TESS As)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1999년 4월 도입되었음

○ PEPs는 가계의 주식시장 수요촉진을 확대하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1987년 도입되었음

- 가입자들이 PEPS 계좌를 통하여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할 경우 배당 소득세 및 자본이득세가 면제됨

○ TESSAs는 PEPs가 위험추구성향이 높은 가계에만 세제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현금성 예금 및 보험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금융상품을 선호하는 가계를 위한 세제혜택 종합계좌로 1991년 도입

- 초기 TESSAs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가입이 부진했음

- 이에 영국정부는 TESSAs와 PEPs를 통합해 세제혜택 부여 조건으로 최소보유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ISA를 도입함
- 영국 ISA는 개인들의 자산축적을 유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국민들의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현실이 반영된 상품임
  - 영국 ISA는 16세가 넘는 영국국민이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세가 면제됨
  - 영국 ISA는 연금은 아니지만 은퇴 전후 개인소득에 대한 보완수단의 기능이 있으며 연금보다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함
  - 영국 ISA는 국민들이 출생에서 사망까지 생애 전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저축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를 보조할 수 있는 체계로 평가 받음
- 영국 ISA는 2008년부터 현금 ISA(Cash ISA)와 유가증권 ISA(Stocks and Shares ISA)의 2개 유형으로 운영됨
  - 현금 ISA에는 현금성 예금과 투자성자산 중 유가증권 ISA에 편입될 수 없는 '적격 투자자산(Qualifying investment)'이 편입됨
  - 유가증권 ISA는 '5% 테스트'를 통과한 '적격투자자산'이 편입됨
    - 투자손실 가능성이 최소한 5%를 넘는 투자자산 중 5%테스트를 통과한 자산을 '적격투자자산'이라고 함
  - 요약하면 유가증권 ISA에는 투자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산만 편입되며 그 외 안전자산은 모두 현금 ISA에 편입되어야 함

## 2. 영국 CTF, Junior ISA

□ 영국정부는 어린이들이 건전한 저축습관을 기르고 미래에 필요한 자금을 축적할 있도록 2005년 1월 어린이 신탁펀드(Child Trust Fund: 이하 CTF)를 도입함(표 3))

○ CTF는 2002년 9월 이후 출생한 영국거주 18세 미만 아동들에게 출생 및 7세 도달 시점에 두 차례에 걸쳐 £250의 보조금을 지급함

-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기초로 부모들이 추가로 저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아동들이 18세가 되는 시점에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부모들이 CTF 보조금만 받고 계좌를 해지하는 사례가 많아 2011년 CTF를 폐지하고 기존의 ISA에 CTF를 연계하여 Junior ISA를 도입

- Junior ISA는 CTF와 비교하여 보조금은 폐지하였으나 연간 저축한도를 상향하여 CTF보다 더 많은 저축을 할 수 있게 하였음  
(CTF; £1,200 => Junior ISA; £4,000)

- 아동이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인출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아동이 사망하거나 불치병에 걸렸을 때는 친권자가 인출이 가능함

- 만기 후 학자금, 생활비 등의 사용처에 관계없이 사용가능하며 만기시점에 자동적으로 일반 ISA로 변경됨

- Junior ISA 및 CTF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계좌임



**[표 3] 영국 세제혜택 저축계좌 유형별 주요내용**

	CTF	Junior ISA	ISA
시행년도	2005년 4월 ~ 2011년 10월	2011년 11월 01일	1999년 04월 06일
가입대상	2002년 9월 1일~ 2011년 1월 2일 출생자	1. 2002년 9월1일 이전에 태어난 16세 이하 아동 2. 2011년 1월3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영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으로 16세 이상인 모든 국민
불입자	부모, 조부모, 양육권자 등	부모, 조부모, 양육권자 등	본인
연간 저축한도	£1,200	£4,000 (2014년 7월 1일부터)	£15,000 (2014년 7월 1일부터)
정부 보조금	태어날 때와 7세가 되었을 때 £250 (저소득층은 £500)	없음	없음
인출 및 용도제한	인출 시기와 사용 용도에 대한 제한 없음	인출 시기와 사용 용도에 대한 제한 없음	인출 시기와 사용 용도에 대한 제한 없음
세제혜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세 면제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세 면제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세 면제
계좌 형태	Stakeholder, Saving, Shares Account	Cash, Stock and Shares Account	Cash, Stock and Shares Account
만기 후	아동이 직접 운영가능, 사용처 제한 없음	연금으로 기능, 사용처 제한 없음	자동으로 성인 ISA로 변경, 사용처 제한 없음

주; 자본시장연구원, HMRC

### 3. 캐나다 TFSA

□ 캐나다의 개인저축계좌(Tax-Free Savings Accounts;이하 TFSA)는 저축 증진을 목적으로 2009년 1월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음

○ 2011년 12월 기준 680 만명이 계좌를 개설하였고, 390억 달러를 저축하여 성공적으로 평가 받고 있음<sup>2)</sup>

□ TFSA는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저축상품으로 인출 및 가입 제한의 규제가 없는 국민금융상품임([표 4])

○ TFSA는 18세 이상의 캐나다 국민은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퇴직자들도 나이에 구애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세가 면제됨

○ TFSA의 저축한도는 C\$5,500으로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매년 이월되어 누적되며 언제라도 인출이 가능함

- 인출한 금액만큼 그 다음해의 납입한도에 추가되어 적립가능함

○ TFSA는 부동산 및 이해 상충적 자산을 제외하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되어 운용되며 사망 시까지 유지할 수 있음

---

2) 캐나다의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는 본 보고서에서 논외로 함

[표 4] 캐나다 세제혜택 저축계좌(TFSA) 주요내용

	TFSA
시행연도	2009년 1월 도입
가입대상	18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
저축한도	C\$10,000
세제혜택	납입액은 소득공제가 없고 자산축적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면제
인출 및 용도제한	인출시기와 사용용도에 대한 제한 없음
운영	TFSA의 자산은 부동산 및 이해상충자산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자산에 다양하게 투자될 것임

주: Canada Revenue Agency

#### 4. 일본 NISA

□ 일본의 개인저축계좌(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ing: 이하 NISA라 한다)는 가계자산 형성지원과 성장자금의 공급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일본의 대표적인 국민금융상품임

- NISA는 영국 ISA를 벤치마킹하여 2014년 1월 도입되었음
- NISA는 20세 이상의 일본거주자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세가 면제되고 인출 및 용도제한이 없음
- 일본은 과거 저축성 예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소액저축 비과세 제도가 있었으나 주식 등의 금융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비과세 하는 상품은 없었음
- 일본은 경제성장 및 가계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NISA를 도입함

□ 일본 NISA는 “저축에서 투자로”의 모토로 자본시장 측면에서 금융투자업의 활성을 목적으로 함

- 일본 ISA는 영국 ISA 및 캐나다 TFSA와 다르게 예·적금을 제외한 주식 등을 중심으로 한 금융투자상품을 적격투자상품으로 한정함
- 영국 ISA나 캐나다 TFSA는 가계 생애 전 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저축을 가능하게 하여 유동자금의 적립장려가 목적인 반면, 일본 NISA는 예·적금에 치우친 일본의 재무구조 관행을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으로 유인하기 위한 목적이 강함
- 즉 일본 NISA는 금융투자업의 육성이라는 요소가 반영되며 1인 계좌가 원칙임

□ 일본 증권업 협회에 따르면 2014년 1월 도입당시 650만개 계좌, 투자잔액 약 1조엔에서 2015년 6월말 기준 921만개 계좌, 투자잔액 5조 1,936억엔으로 성장함

- NISA 도입 후 니케이 지수의 상승폭이 약 20%(2014년 1월 6일;15,908.88 ⇒ 2015년 10월 30일;19,083.10)상승하여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NISA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NISA를 이용한 대부분의 연령대가 60대 이상으로 전체의 59.8%를 차지하며 NISA를 통해 투자할 만한 금전적 여유가 없다고 답변한 것은 NISA의 한계임

- 금융투자상품만을 대상으로 한 NISA는 위험회피 성향이 높은 금융소비자나, 자금여력이 많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음

**[표 5] 일본 세제혜택 저축계좌(NISA) 주요내용**

	NISA
시행연도	2014년 1월 도입
가입대상	20세 이상 일본 거주자
저축한도	100 만엔
세제혜택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면제
비과세 기간 및 한도	최장 5년 (500 만엔)
인출 및 용도제한	인출시기와 사용용도에 대한 제한없음
기타	NISA는 일반계좌와 손익통산이 안되며, 1인 1계좌임

주; 政府広報オンライン(2013), 金融庁(2013)

## IV 박근혜 ISA VS 재형저축·소장펀드 VS 선진국 ISA

### 1. 박근혜 ISA<sup>3)</sup> 현황

- 박근혜 ISA는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하였음
  - 금융당국은 국민의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재형저축/소장펀드를 도입하였으나 실패를 거듭한 끝에 영국 ISA를 참조하여 박근혜 ISA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 금융당국은 2014년 9월 박근혜 ISA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5년 국회 제출 및 세부사항 정비를 거쳐 2016년 3월 도입하였음
  - 박근혜 ISA 도입으로 개인의 재산형성 기회를 높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 선택을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음
- 박근혜 ISA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의무가입 유지기간 5년, 가입가능 기간 3년 등의 제한이 있는 비과세 금융상품임([표 6])

3) 현 정부의 ISA를 선진국의 ISA와 비교하기 위하여 “박근혜 ISA”라고 칭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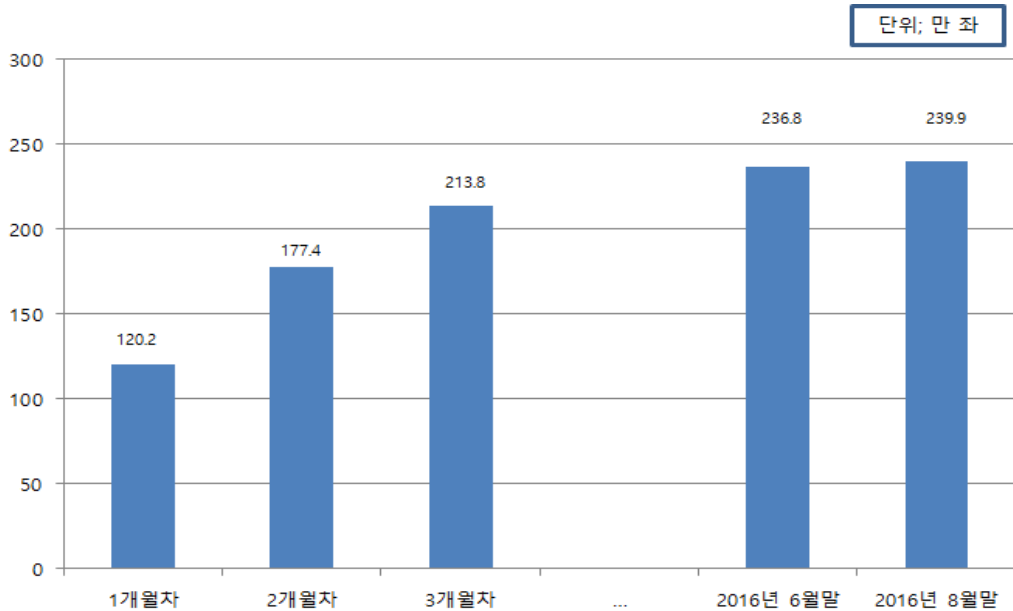
[표 6] 박근혜 ISA 주요내용

	박근혜 ISA
시행연도	2016년 3월 도입
가입대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저축한도	연 2,000 만원
세제혜택	발생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비과세기간 및 한도	만기 5년
의무가입 유지기간	5년
기타	중도 인출 불가능, 납입상한선: 연 2,000 만원

주: 금융감독원

- 그러나 박근혜 ISA는 초기 1개월차 120.2만좌에서 3개월차 213.8만좌로 증가하였으나 가입대상 한정과 의무가입 유지기간 등으로 2016년 6월말 236.8만좌, 2016년 8월말 239.9만좌로 정체되고 있음 ([그림 3])
- 국민재산증식을 위한 박근혜 ISA는 초기에만 증가하다가 최근 정체되어 기존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의 길을 걷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또한 가입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계좌가 많아 박근혜 ISA는 국민 재산형성이라는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외에 서민형 가입자 비중이 낮다는 점, ISA 판매시 투자자 성향 분석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림 3] 박근혜 ISA 현황



주: 금융감독원

□ 박근혜 ISA는 투자자가 종목 및 수량을 모두 지정하는 신탁형 ISA와 금융회사에 일임하는 일임형 ISA로 구분되어 판매됨 ([표 7])

[표 7] 신탁형 ISA/일임형 ISA

	신탁형 ISA	일임형 ISA
운용방식	투자자가 종목 및 수량 모두 지정	금융회사가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 중 투자자가 하나 선택
모델포트폴리오 제시	제시금지 (개별 포트폴리오 자문은 가능)	제시 의무화
자산재조정 (리밸런싱)	의무사항 없음	최소 분기 1회 일임업자가 검토 의무
편입상품 교체	투자자 지시 필수	일임업자에 위임 가능
온라인 가입	불가	가능

주: 금융감독원



□ 박근혜 ISA는 일반형 ISA, 서민형 ISA, 청년형 및 자산형성형 ISA로 구분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이는 서민 및 청년에게 의무가입기간을 줄여주고, 비과세 혜택을 늘려주기 위한 것임([표 8])

- 비과세; 일반형 및 자산형성형 ISA 200만원, 서민형 ISA 250만원
- 의무가입기간; 일반형 ISA 5년, 서민형 및 자산형성형 ISA 3년

[표 8] 박근혜 ISA 유형

	일반형	서민형	청년형 및 자산형성형
가입대상	1. 근로소득자 2. 사업소득자 3. 농어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1.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2.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자	1. 일반형 요건 충족자 중 15세 이상 29세 이하 (병역기간 제외 한 연령) 2. 희망 내일 키움통장 가입자
의무가입기간	5년	3년	3년
최대 가입기간	5년	5년	5년
비과세 한도	순이익 200만원 (2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순이익 250만원 (25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순이익 200만원 (2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주; 금융감독원

## 2. 박근혜 ISA VS 재형저축/소장펀드

□ 박근혜 ISA는 기존의 실패한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와 비교하여 가입자격, 납입한도 등에서 완화된 측면이 있으나 세제혜택은 재형저축에 비하여 떨어짐 [(표 9)]

○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와 비교하여 가입자격 및 납입한도 측면에서 제약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계층이 이용할 수 있게 하였음  
(가입자격 및 납입한도: ISA > 재형저축 > 소장펀드)

- 재형저축;

가입자;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 거주자

납입한도; 연 1,200만원

- 소장펀드;

가입자;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거주자

납입한도; 연 600만원

- 박근혜 ISA;

가입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제외한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납입한도; 연 2,000만원

○ 세제혜택 측면에서 박근혜 ISA는 재형저축에 비하여 혜택이 덜하고 소장펀드에 비하여 혜택이 좋음  
(재형저축 > 박근혜 ISA > 소장펀드)

- 재형저축; 납입금액 전액 비과세

- 소장펀드; 납입액 40% 소득공제
- 박근혜 ISA; 순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분리과세

□ 요약하면 박근혜 ISA는 실패한 재형저축에 비하여 가입자격 및 납입한도는 완화하였지만 세제혜택은 좋지 못하여 재형저축에 비하여 좋은 상품으로 볼 수 없어 실패할 가능성이 큼

[표 9] 재형저축·소장펀드 vs 박근혜 ISA 비교

	재형저축	소장펀드	박근혜 ISA
가입자격	•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거주자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거주자	•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납입한도	• 분기 300만원 (연 1,200만원)	• 연 600만원	• 연 2,000만원
편입상품	• 예금, 펀드, 보험	• 펀드	•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손익통산	• 해당 없음(상품별)	• 해당 없음(상품별)	• 계좌 내 손익통산
상품 간 교체	• 불가	• 불가	• 가능
세제혜택	• 비과세	• 납입액 40% 소득공제	• 인출 시 순소득 기준 200만원 限 : 비과세 200만원 초과 : 분리과세 9% (지방소득세 포함시 9.9%)
기타	• 만기 7년 이상, 추가 3년 연장 가능 (2015년 일몰)	• 만기 5년 이상, 추가 5년 연장 가능 (2015년 일몰)	• 만기 5년

주: 금융감독원

### 3. 박근혜 ISA VS 선진국 ISA

- 박근혜 ISA는 ‘목돈마련의 동반자’로서 저금리·고령화 상황에서 기존 상품별 세제혜택 방식이 아니라 특정계좌에 편입된 상품은 일정범위 내에서 모두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선진국 ISA와 동일 함
- 그러나 박근혜 ISA는 가입자격, 연간납입한도, 인출제한, 편입상품의 범위, 세제혜택 방식, 계좌의 법적구조 등에서 선진국 ISA와 다름 (표 10)
- 가입자격 측면에서 선진국에서는 특정연령에 도달한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박근혜 ISA는 연령은 제한이 없지만 소득 측면에서 직전연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음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했는데, 이는 과세형평 차원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납입한도 측면에서 박근혜 ISA는 선진국 ISA와 비교하여 높게 설정되어 있지만 비과세 혜택은 선진국 ISA에 비하여 낮음
  - 박근혜 ISA는 연간 2,000만원의 납입한도로 영국 £15,240, 캐나다 C\$ 10,000, 일본 100만엔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음
  - 선진국 ISA는 연간납입한도까지 납입된 금액에 대하여 모두 비과세 하지만, 박근혜 ISA는 일정소득(200만원)까지만 비과세해주고 그 이상은 분리 과세해 준다는 점에서 다름
- 인출제한 측면에서 선진국 ISA는 공통적으로 인출제한을 두지 않지만 박근혜 ISA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함

- 기존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등도 의무가입기간을 고려하여 금융자산 형성을 어느 정도 강제하려는 의도임
- 편입상품 측면에서 선진국 ISA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거의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박근혜 ISA는 직접투자는 할 수 없도록 하였음
  - 선진국 ISA는 편입가능 금융상품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하지만, 박근혜 ISA는 예·적금, 펀드, ELS와 같은 파생상품으로 제한하여 주식·채권 등의 직접투자는 못하게 하였음
- 세제혜택 측면에서 박근혜 ISA는 선진국 ISA와 달리 상품 간 손익개념을 도입하여 동일 기간의 상품 간 손익을 통산 후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그 이상은 분리과세를 부여하였음
  -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5년간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여 인출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에 소액을 저축하는 일반국민의 세제혜택은 부족한 반면, 2,0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고소득층은 분리과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박근혜 ISA는 신탁형 ISA 및 일임형 ISA로만 설계되어 있으므로 신탁보수가 과도로 발생하여 금융소비자의 실질수익이 줄어들 수 있음

[표 10] 박근혜 ISA VS 선진국 ISA

	영국	캐나다	일본	박근혜 ISA
도입시기	1999년	2009년	2014년	2016년
도입목적	가계소득 증대	가계소득 증대	금융자산 형성지원 및 자본시장 활성화	가계소득 증대
가입자격	16세 이상 영국거주자	18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	20세 이상 일본 거주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자
의무가입기간	없음	없음	없음	5년(서민형, 청년형 및 자산형성형은 3년)
세제혜택	발생소득 전액 비과세, 배당소득만 10%원천징수	발생소득 전액 비과세	발생소득 전액 비과세	발생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세제혜택기간	계좌보유기간 동안 무제한	계좌보유기간 동안 무제한	투자시점부터 최장 5년	투자시점부터 최장 5년
가입가능기한 (제도 적용 기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2014 ~ 2023년 (10년)	2016 ~ 2018년 (3년)
중도인출 가능여부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납입상한선	£15,240	C\$10,000	100 만엔	연 2,000 만원
편입가능 상품	연금성 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 가능	연금성 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 가능	상장주식, 펀드 등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결합증권
유소년 대상	Junior ISA(2011년 도입)	없음	Junior NISA(2016년 도입)	없음

주: 자본시장연구원, Canada Revenue Agency, HMRC, 政府広報オンライン, 金融庁

- 요약하면, 박근혜 ISA는 잘못된 상품구조로 선진국 ISA를 어정쩡하게 모방한 ISA로 실패요인이 많은 거짓 ISA로 판명됨
  - ISA라는 상품은 만능 상품으로 이보다 더 좋은 금융상품은 나올 수 없다는데 이견이 없는 상품임
  - 그러나 박근혜 ISA는 성공적인 국민대표 금융상품으로 인정받는 선진국형 ISA를 잘못 적용하여 실패한 ISA가 되고 있음

## V 결론(True ISA)

### 1. True ISA<sup>4)</sup>

#### □ True ISA는 선진국 ISA와 동일하게 전액 비과세로 세제혜택을 확장해야 함

- 2014년 9월 박근혜 ISA를 처음 발표할 당시에는 복수의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고 이에 따른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발표했음
- 그러나 박근혜 ISA는 금융소득 중 2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9%로 저율·분리과세로 후퇴하였음
- 박근혜 ISA는 계층 간 소득분배의 형평성 문제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선진국 ISA와 다른 방식으로 설계되어 5년(또는 3년)의 의무가입기간을 기다릴 수 없는 저소득층이 이용하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음
- True ISA는 선진국 ISA와 동일하게 전액 비과세로 세제혜택을 확장해야 함

#### □ True ISA는 수익에 대한 비과세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소득공제 혜택도 포함하여 세제혜택을 늘려 저변을 확대해야 함

-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으므로 주식형 펀드를 ISA에 편입하더라도 추가적인 혜택이 크지 않음

4) 본 보고서에서 True ISA는 잘못된 박근혜 ISA와 대비되는 개념의 용어로 사용하였음



-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경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ISA가 기존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큰 유인이 없을 수 있음

□ True ISA는 박근혜 ISA의 의무가입기간을 폐지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대표적인 국민금융상품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음

- 선진국 ISA의 목적은 “저축 장려” 또는 “금융자산 형성 지원”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족한 퇴직자산을 보충하고 생애주기 중 언제든지 인출하여 쓸 수 있는 “예비적 저축”의 적립지원임
- 박근혜 ISA는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형 ISA를 구분하여 5년에서 3년의 의무가입기간으로 단축하고 있으나 3년의 기간 동안 자금을 묶어야만 하는 저소득층은 많지 않음
- 해외 사례를 보았을 때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중·저소득층의 가입을 주저하게 만들어 ISA 상품을 실패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음
  - 이는 영국 ISA 도입과정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데 ISA가 도입되기 전 영국 초기상품인 TESSAs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가입이 부진하였음
  - 이에 영국정부는 의무가입기간을 철폐한 ISA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저소득층까지 포함한 전 국민의 금융상품이 될 수 있었음
- True ISA도 의무가입기간을 폐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예비적 저축을 장려하여 전 국민의 공식적인 로 발돋움 할 수 있음

- True ISA는 선진국 ISA와 동일하게 중도인출을 가능하게 하고 세제 혜택기간을 계좌보유기간동안 무제한으로 설계해야 함
  - 박근혜 ISA의 중도인출 불가능, 세제혜택 기간 투자시점부터 최종 5년은 선진국 ISA와 비교하여 조건적 혜택임
  - 선진국 ISA는 중도인출 가능, 세제혜택기간 무제한으로 설계되어 무조건적 혜택을 주고 있음
  - True ISA도 선진국 ISA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대다수 한국 중산층 및 서민들이 재산형성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야 함
- True ISA는 가입자격을 소득요건에서 연령요건으로 바꾸어 수요층을 대한민국 전 국민으로 늘려야 함
  - 박근혜 ISA는 선진국 ISA와 달리 가입자격을 연령요건으로 하지 않고 소득요건으로 하고 있어 ISA의 수요층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부의 부당이전 방지 및 근로자의 금융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나 이는 전 국민이 대표적인 금융상품을 하나씩 보유함으로써 “예비적 저축”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초기 ISA의 의도에서 벗어남
  - 소득이 없어도 전 국민의 금융 상품에 대한 인식 고취, 대체투자의 다변화로 부동산자금의 부동산 집중화 현상 약화 등을 위하여 연령요건으로 변동이 필요함
  - 소득자로 제한하면 수요층의 범위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적어도 가구에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가구 구성원은 누구나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바꿈으로써 수요층을 넓혀야 함

□ True ISA는 안전자산에 심하게 쏠려 있는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의 다변화를 통하여 포트폴리오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야 함

- 2011년 기준 주식 및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하여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은 안전자산에 편향되어 있음
- True ISA는 금융소비자에게 양질의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단순히 “재형저축”의 형태에 머물지 않고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한 금융자산 다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1,000조원에 이르는 부동산금이 부동산으로 몰려가 주택가격 향상으로 주거문제에 힘겨워 하는 상황에서 ISA를 통해 양질의 금융투자상품을 소개하여 부동산이 아닌 대체투자를 소개하는 것은 주거문제 등의 사회문제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

□ True ISA는 선진국 ISA와 동일하게 일몰을 폐지하여 지속가능한 운용이 가능하게 해야 함

- 정부는 국가를 대표하는 금융상품을 만들기 위하여 재형저축(2015년말 일몰), 소장펀드(2015년말 일몰), 박근혜 ISA(2018년말 일몰)를 만들었지만 모두 제도 적용기한(일몰)이 있었으며 그 기간 또한 짧아서 국민대표 금융상품으로 성장하지 못했음
- 박근혜 ISA는 선진국 ISA와 달리 3년을 일몰로 설계되어 운용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금융소비자나 금융회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투자 및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 박근혜 ISA의 일몰은 3년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금융회사 측면에서 3년 이후에 없어질 제도라면 굳이 많은 자금을 투자하지 않음
- 금융소비자 측면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생애주기에 맞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ISA의 취지 중 하나인데 3년 이후에 없어질 제도에서 생애주기별 자금운용을 기대하기 어려움
- 선진국 ISA는 일몰이 없든지 일본 ISA는 10년의 일몰로 국민대표상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박근혜 ISA의 일몰은 매우 짧아 국민상품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이에 True ISA는 장기간 신뢰성 있는 제도로 안착하기 위하여 일몰을 폐지하여 영구적인 제도로 정착시켜야 함
- True ISA는 자유로운 계좌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금융회사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금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함
  - 박근혜 ISA는 1인 1신탁으로 설계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정기적인 신탁보수가 발생하여 금융소비자의 실질 소득을 낮출 수 있음
  - 계좌이동을 가능하게 하면 금융회사의 경쟁을 유도하여 금융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음
- True ISA는 투자자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형 투자자문업자 (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IFA)제도가 병행되어야 함
  - 박근혜 ISA는 현재 신탁형 ISA와 일임형 ISA로 구분하여 판매되고 있으나 투자자문 기능 수행이 부족함

- IFA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면 ISA 가입자들이 계좌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며 금융권역 간 형평성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
- True ISA는 저소득형 ISA 기능을 부차하여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과감한 금리혜택을 주어 저소득자 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종합금융상품으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임
- 일반적인 ISA에 비하여 저소득형 ISA의 자격요건 및 혜택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자격요건: 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자
  - 혜택;
    - 세제혜택(전액 비과세 및 소득공제)은 일반적인 한국형 ISA와 동일
    - 금리혜택(10% 추가)은 일반적인 한국형 ISA에 비하여 추가
  - 나머지 사항은 일반형 ISA와 동일함
- 마지막으로 True ISA는 유소년을 대상으로 한 ISA를 설계하여 유소년 시절부터 금융자산을 이용한 목돈 마련 및 금융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선진국 ISA는 유소년을 대상으로 한 ISA가 성인 ISA와 연동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금융자산을 형성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금융 교육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음

- 어릴 때부터 이루어진 금융교육은 국내 금융 산업을 발달시키고 이러한 금융 산업 발달은 대체투자수단을 다양화하여 부동산자금의 부동산에 몰리는 쏠림현상을 막아 작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금융 산업 발달 ⇒ 대체투자 수단 다양화 ⇒ 부동산자금의 부동산 쏠림현상 분산 ⇒ 부동산문제 해결)

- 결론적으로 True ISA는 기존 박근혜 ISA의 가입자격, 의무가입기간, 일몰기간 등의 올바른 제도 재설계, 정부의 과감한 세제혜택, 유소년·저소득형 ISA, 독립형 투자자문(IFA)의 도입으로 국민대표 금융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임([그림 4])

- 기존 잘못된 박근혜 ISA를 선진국 수준의 ISA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제도설계가 필요함

- 발생소득 전액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정부의 과감한 세제혜택 및 원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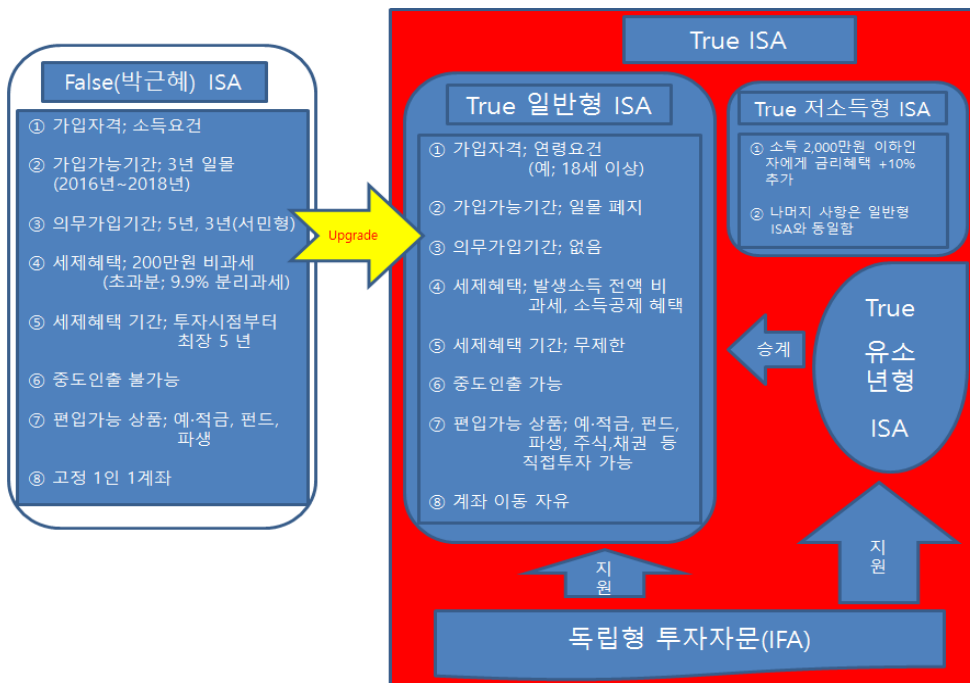
- 선진국에서도 과감한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으며 1974년 4월 출시된 박정희 재형저축도 고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다양한 가입기간 등으로 성공했던 역사가 있음

- 유소년 ISA의 도입으로 어릴 때부터 금융상품 교육을 통해 건전한 금융투자 문화형성으로 선진국형 가계재무구조 형성이 가능함

- ISA에 독립형 투자자문 도입으로 서민들에게 합리적인 투자수단을 제공하며 투자자문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수수료 수입에 급급한 자본시장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음

- 서민형 Wrap Account(투자자문)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ISA의 도입은 서민들도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함
  - 서민형 ISA의 경우 투자자문에 대한 수수료를 저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도 있음
  - 불완전 판매의 경우 미스터리 쇼핑 실시 및 처벌 강화를 통하여 방지할 수 있음
- 또한 서민형 Wrap Account(투자자문)는 수수료 수입에 급급한 금융 투자회사의 선진국형 업종 변경으로 자본시장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음

[그림 4] True ISA 구조도<sup>5)</sup>



5) ISA에 관한 하나의 안을 제시한 것이며, 영국처럼 서민을 위한 저축형, 투자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할 수도 있음

## 2. 기타 개선점

- ISA의 경쟁력은 “수익성”에 의해 좌우되므로 평균수익률 이외에 ISA를 운용하는 금융회사 간 비교공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익률이 높은 금융회사를 찾아가도록 해야 함
  - 수익률 비교공시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이 성과가 뛰어난 금융회사를 찾아가고 이는 금융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여 다시 높은 수익률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 공식적인 외부 검증기관을 통하여 수익률을 검증하고, 공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공시를 제공해야 함
-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차원에서 미스터리 쇼핑을 자주 실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권유 불원확인서” 및 “금융상품 부적합확인서”를 징구하여 불완전 판매를 방지해야 함
  -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신뢰를 확보해야 우리나라의 금융 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ISA가 국민 대표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
- 한국형 ISA가 한국의 대표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아 우리나라의 금융 산업이 발전하고 한국 경제의 초석이 되기를 바램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개혁방안, 보도자료, 2014(7.10).
- 금융위원회,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보도자료, 2013(11.25).
- 금융위원회, 국민재산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 2016(2.12).
- 금융위원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동향 및 분석, 보도자료, 2016(7.21).
- 강민우, 2008, “한국자본시장의 주식 프리미엄과 위험회피계수 추정”, 『응용경제』, 10(3), 33-49.
- 김재철·홍원구·김종민, 2011,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 세제혜택 금융상품의 역할을 중심으로”, 『자본시장연구원 용역보고서』.
- 김재철, 2014, “영국의 개인저축계좌(ISA) 현황과 시사점”, 『유럽금융시장포커스』 2013년 가을/겨울호, 1-11.
- 정순섭·송홍선·진익, 2013, “금융상품 자문·판매 지원 서비스 추진을 위한 조사 연구용역”,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용역보고서』.
- 천창민, 2014, “일본판 개인저축계좌(ISA) 제도와 현황”, 『자본시장연구원 Capital Market Perspective』 Vol. 6, No. 3, 19-32.
- 천창민·이현정, 2013, “해외 소액투자지원제도와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이슈&정책』 13-08.
- 홍병교·이상엽, 2014,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 관련 공청회”, 『한국조세연구원』.
- 홍원구, 2012, “캐나다의 개인연금 현황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Issue Paper 12-08.

### 〈해외 문헌〉

- 金融庁, 2013, “NISAについての Q&A”.
- 政府広報オンライン, 2013, “新しい投資優遇制度がスタート”.
- Canada Revenue Agency, 2014, Tax-Free Savings Account(TFSA), Guide for Individuals.
-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2013, Tax Expenditures and Evaluations 2012.
- Global Information, 2012, Junior ISAs: Saving for the Next Generation.
- HMRC, 2012, ISAs: Guidance Notes for ISA Managers.
- HMRC, 2013, Individual Savings Account(ISA) Statistics.
- HMRC, 2014, Individual Savings Account(ISA) Statistics.
- Hodgen, Phil, 2013, “Is an ISA a Foreign Trust? Hodgen Law International Tax”.

OECD, 2013,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Pape, G., 2009, "Tax-Free Savings Accounts: A Guide to TFSAs and How They Can Make You Rich, Penguin Canada".

## 〈웹사이트〉

Canade Revenue Agency	<a href="http://www.cra-arc.gc.ca/menu-eng.html">www.cra-arc.gc.ca/menu-eng.html</a>
HM Revenue & Customs	<a href="http://www.hmrc.gov.uk">www.hmrc.gov.uk</a>
ICI	<a href="http://www.ici.org">www.ici.org</a>
OECD	<a href="http://www.oecd.org">www.oecd.org</a>
Statistics Canada	<a href="http://www.statcan.gc.ca">www.statcan.gc.ca</a>
US IRS	<a href="http://www.irs.gov">www.irs.gov</a>
Worle Bank	<a href="http://www.worldbank.org">www.worldbank.org</a>
일본금융청	<a href="http://www.fsa.go.jp">www.fsa.go.jp</a>
한국은행	<a href="http://www.bok.or.kr">www.bok.or.kr</a>
금융감독원	<a href="http://www.fss.or.kr">www.fss.or.kr</a>